

#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

## CATI & ARS

제80차 CATI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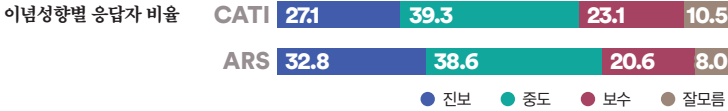
제95차 ARS조사

여론조사꽃

정례여론조사

보고서

CATI & ARS



CATI 조사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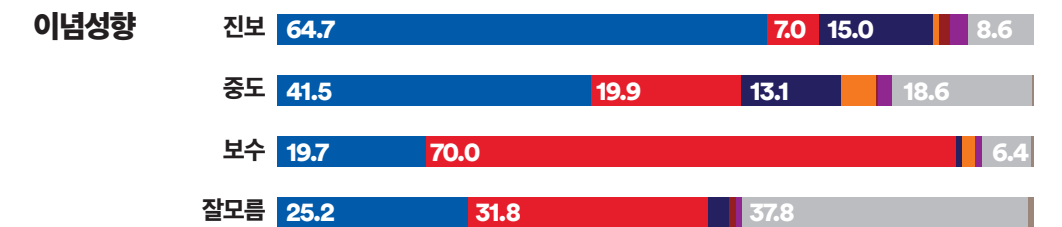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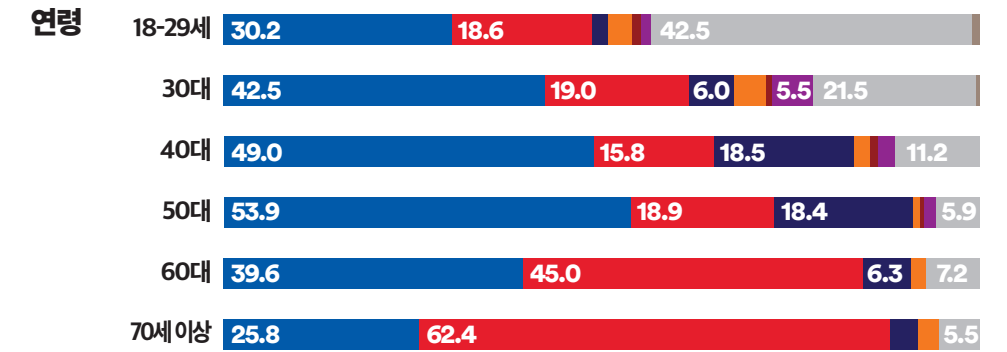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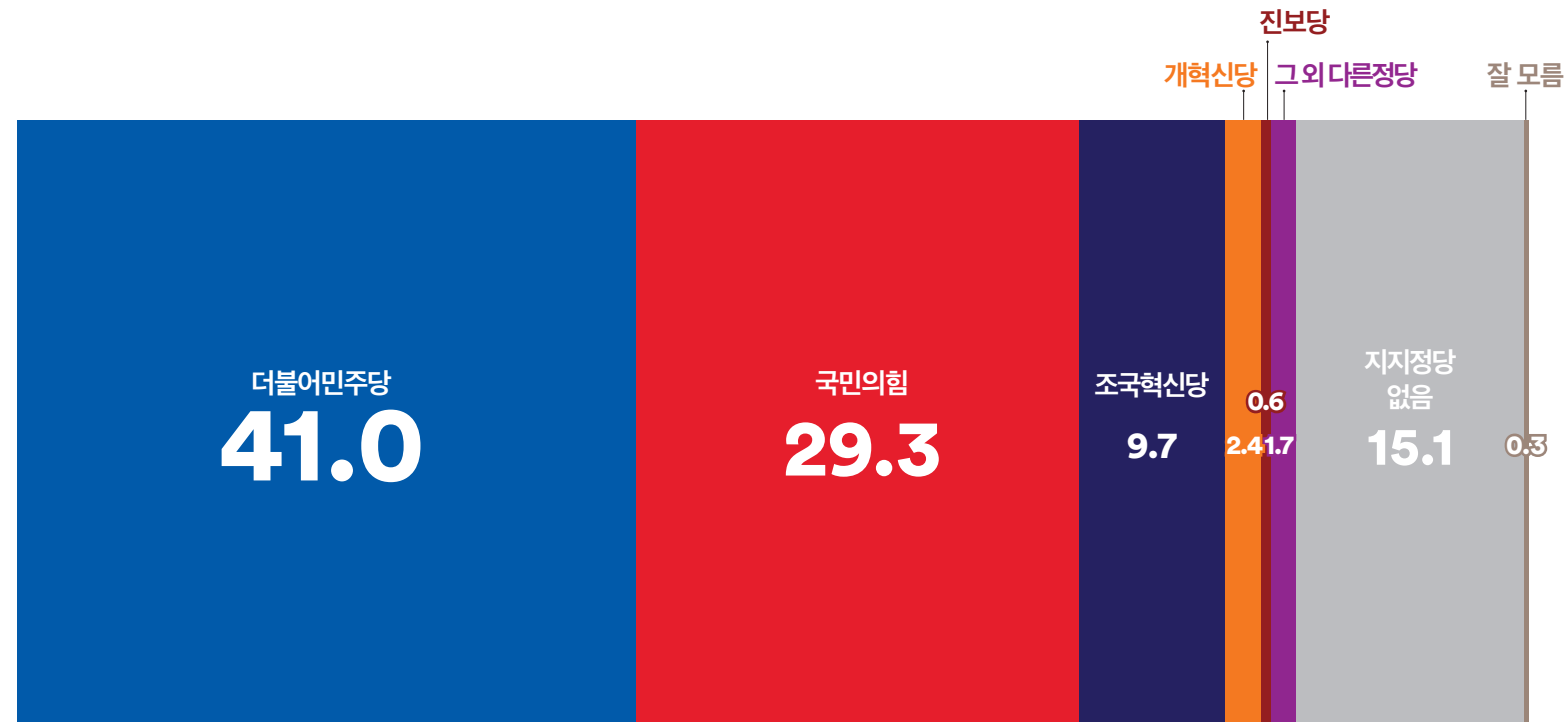


ARS 조사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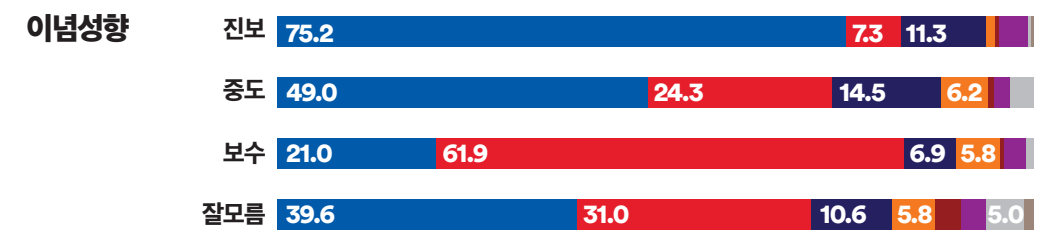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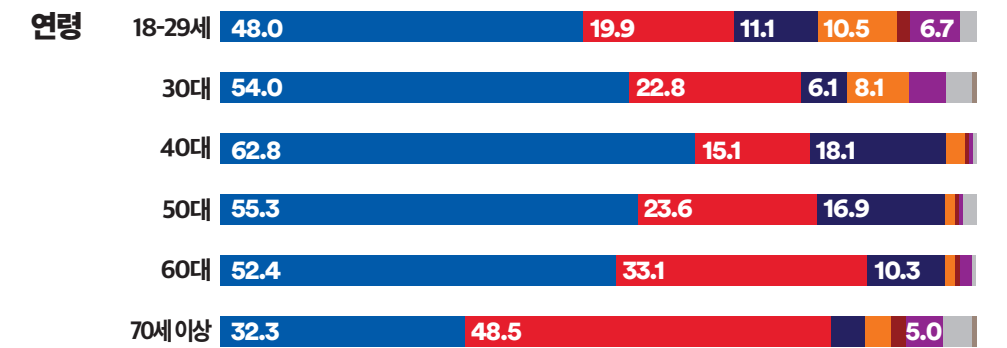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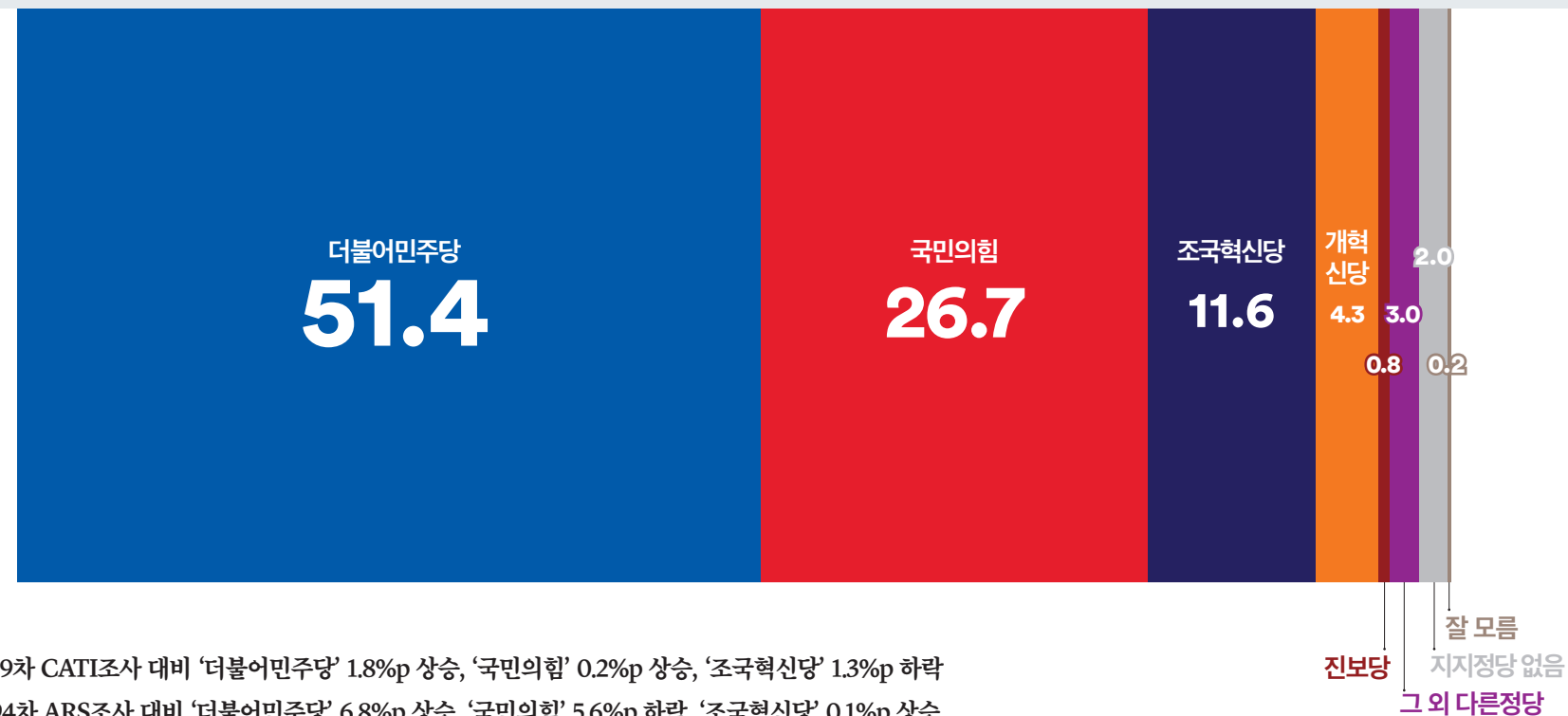


Q.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?

CATI



AR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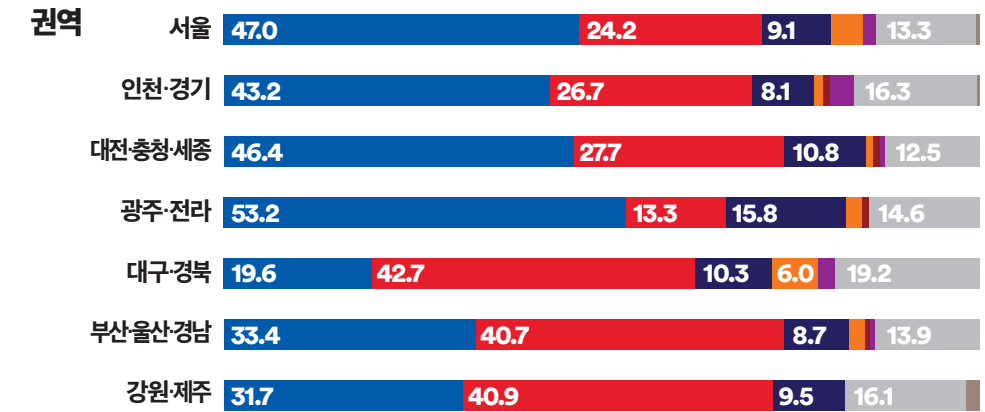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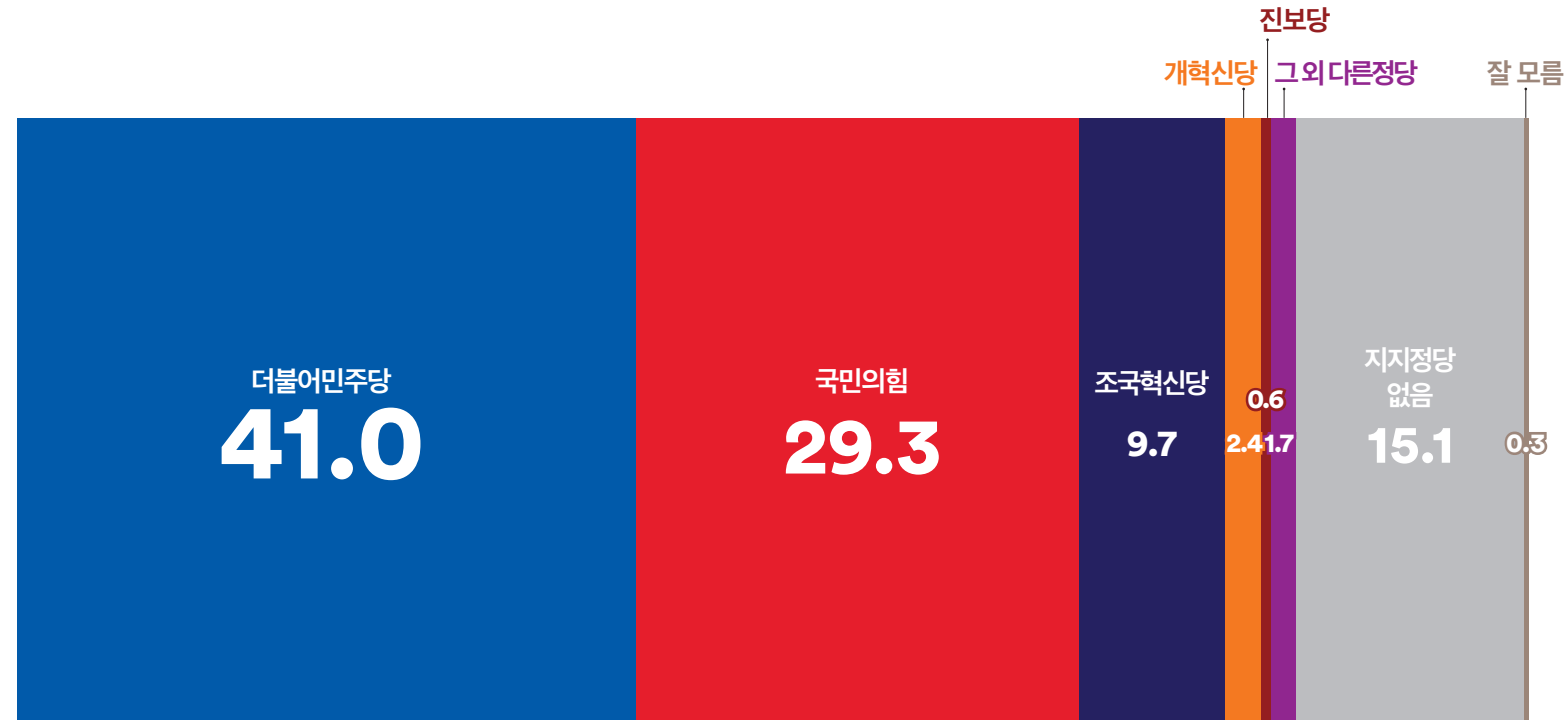


79차 CATI조사 대비 ‘더불어민주당’ 1.8%p 상승, ‘국민의힘’ 0.2%p 상승, ‘조국혁신당’ 1.3%p 하락  
 94차 ARS조사 대비 ‘더불어민주당’ 6.8%p 상승, ‘국민의힘’ 5.6%p 하락, ‘조국혁신당’ 0.1%p 상승  
 ‘더불어민주당’:‘국민의힘’간 격차는 CATI 11.7%p, ARS 24.7%p(지난주: CATI 10.1%p, ARS 12.3%p)  
 ‘더불어민주당’+‘조국혁신당’:‘국민의힘’간 격차는 CATI 21.4%p, ARS 36.3%p(지난주: CATI 21.1%p, ARS 23.8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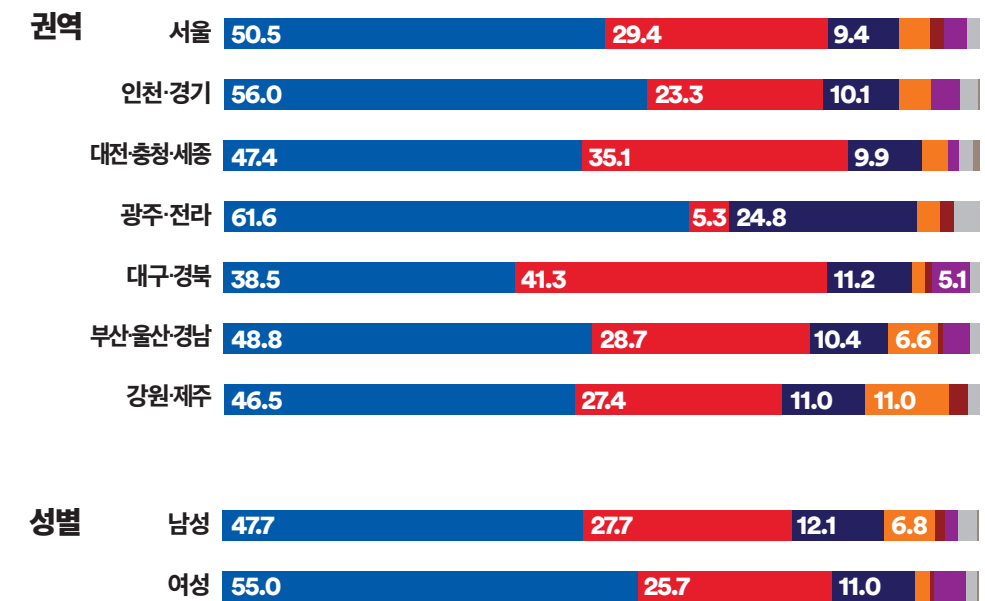
■ 더불어민주당 ■ 국민의힘 ■ 조국혁신당 ■ 개혁신당  
■ 진보당 ■ 그 외 다른 정당 ■ 지지정당 없음 ■ 잘 모름

Q.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?

CATI



AR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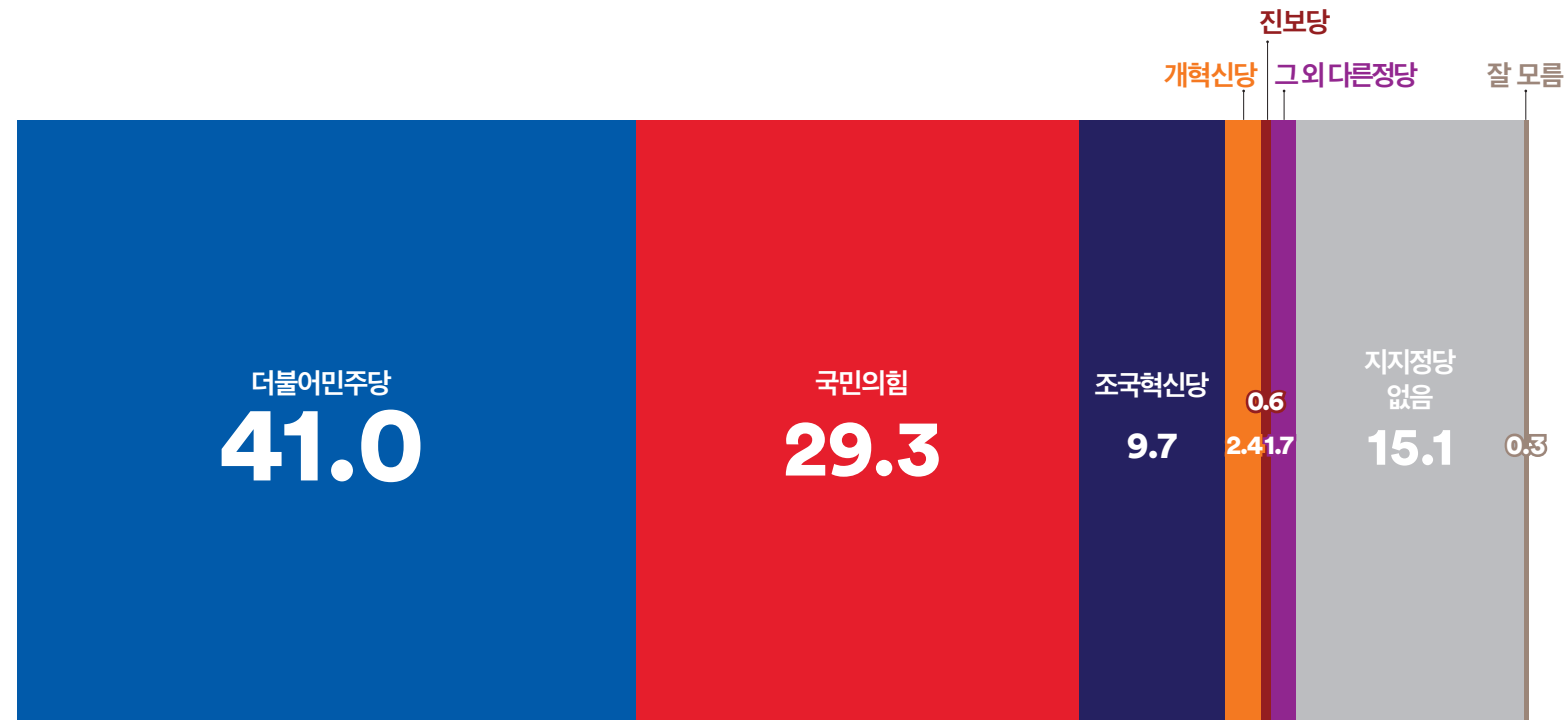


남녀 모두 '더불어민주당', '더불어민주당'+ '조국혁신당'이 '국민의힘' 대비 앞서거나 우세  
 TK권의 경우, 두 조사 모두 '국민의힘'이 '더불어민주당', '더불어민주당'+ '조국혁신당' 대비 앞서거나 우세  
 '국민의힘': '더불어민주당'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'더불어민주당'이 수도권과 호남권(ARS PK 포함)에서 우세  
 '국민의힘': '더불어민주당'+ '조국혁신당'을 비교하면 '더불어민주당'+ '조국혁신당'이 CATI조사는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, ARS조사는 수도권, 충청권, 호남권 우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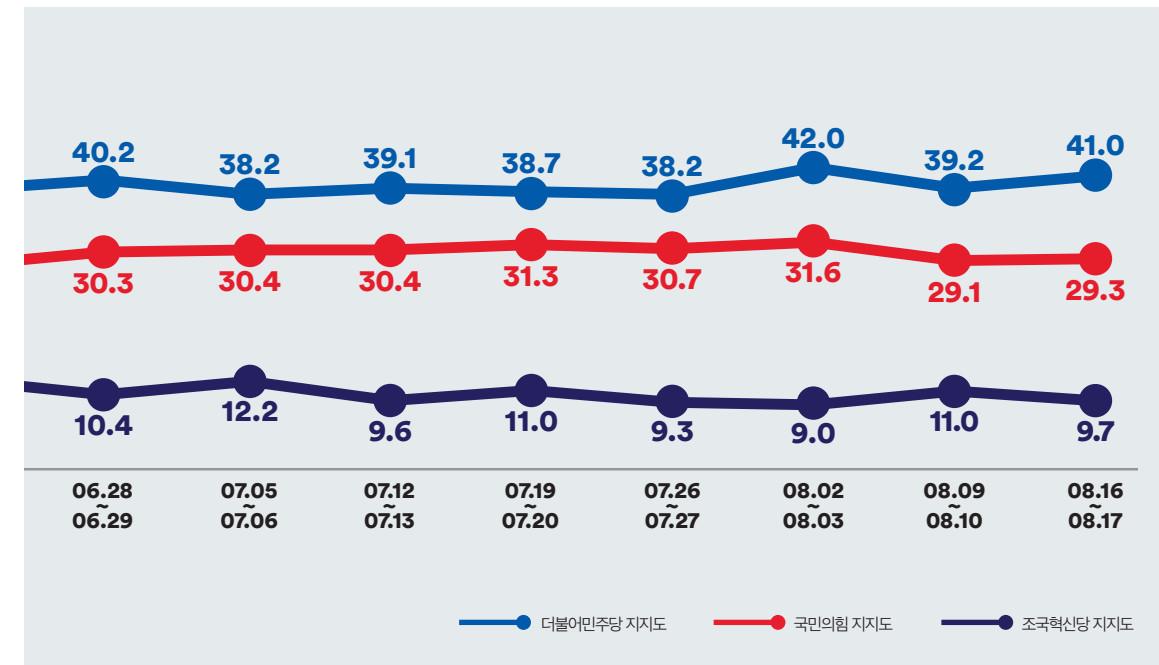
■ 더불어민주당 ■ 국민의힘 ■ 조국혁신당 ■ 개혁신당  
 ■ 진보당 ■ 그 외 다른 정당 ■ 지지정당 없음 ■ 잘 모름

Q.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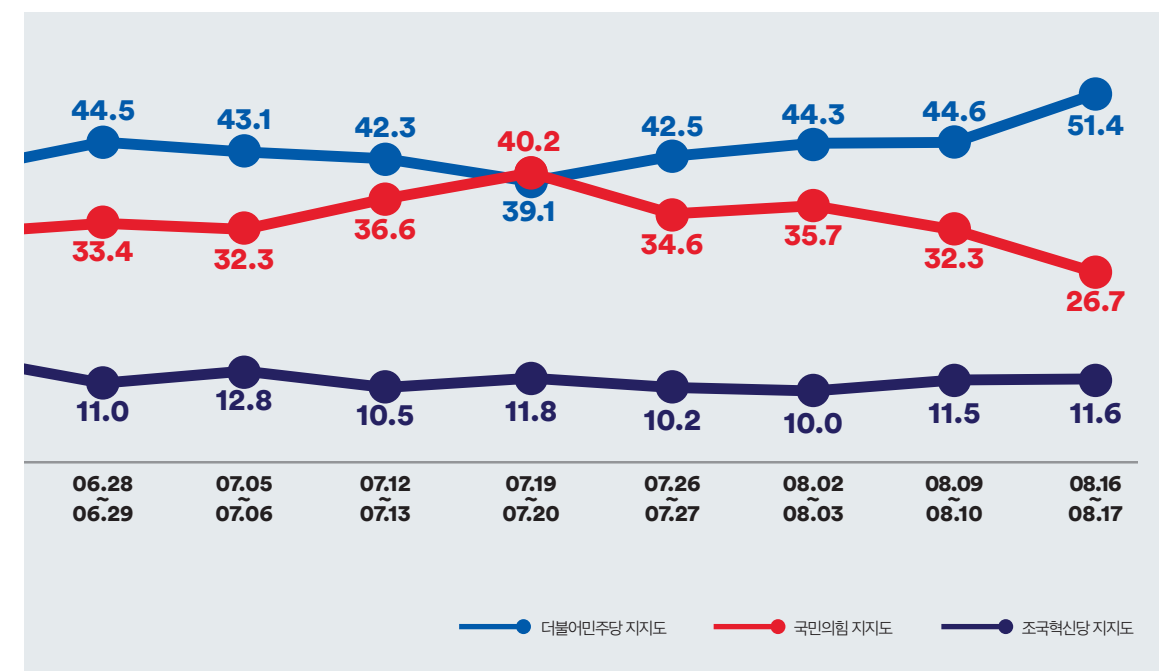
CATI



주차별  
정당지지도



ARS



CATI조사의 중도층은 '더불어민주당' 41.5%, '국민의힘' 19.9%, '조국혁신당' 13.1%의 지지율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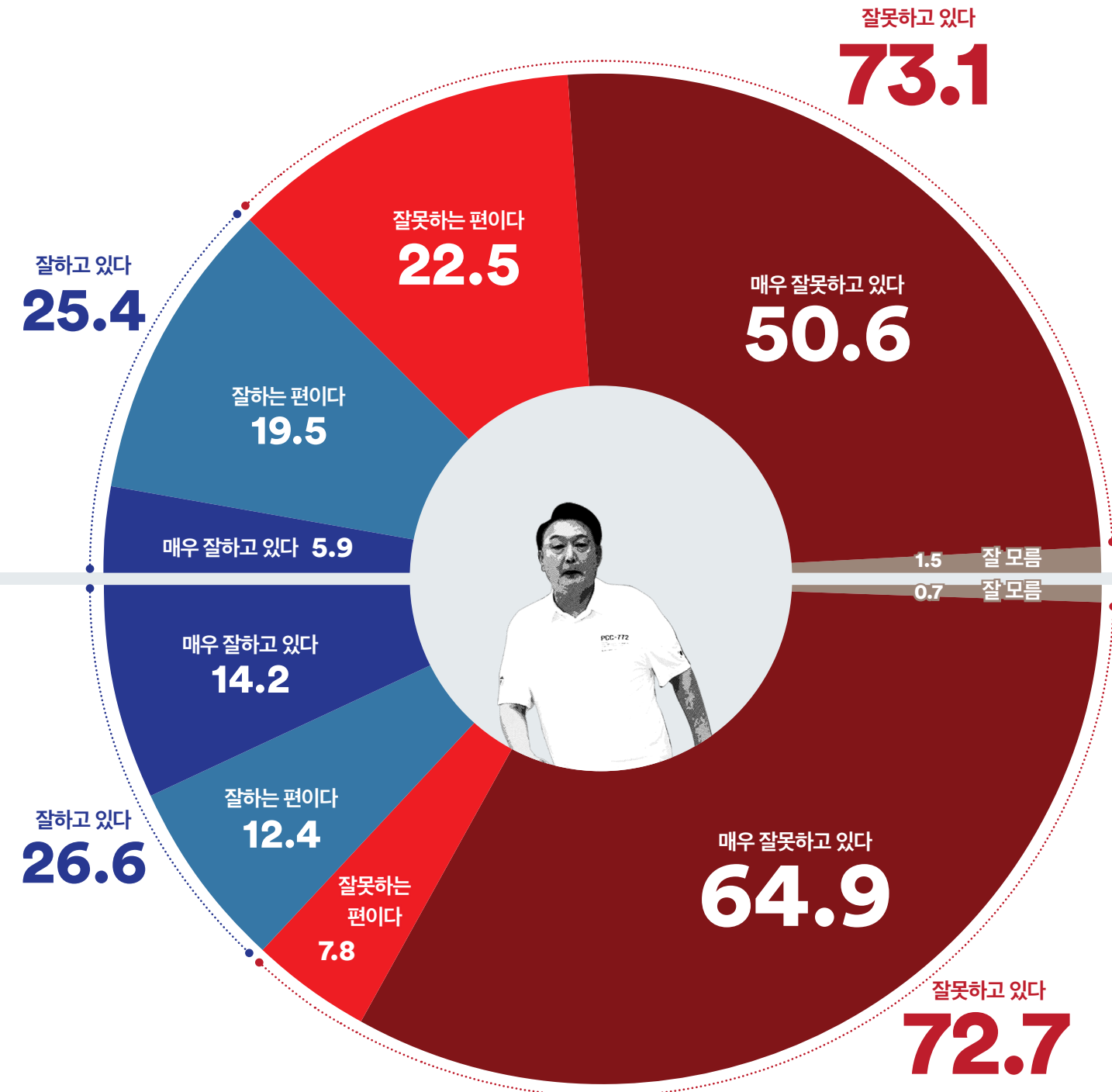
ARS조사의 중도층은 '더불어민주당' 49.0%, '국민의힘' 24.3%, '조국혁신당' 14.5%의 지지율을 보임

중도층에서의 양 세력('더불어민주당'+ '조국혁신당': '국민의힘')간 지지율 격차는 CATI 34.7%p(79차: 30.3%p), ARS 39.2%p(94차: 31.6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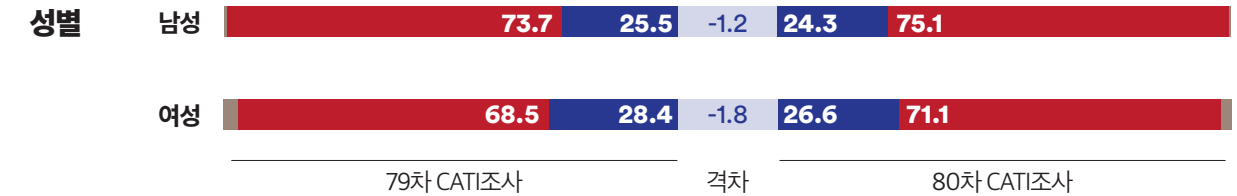
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 
진보당 그 외 다른 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

Q.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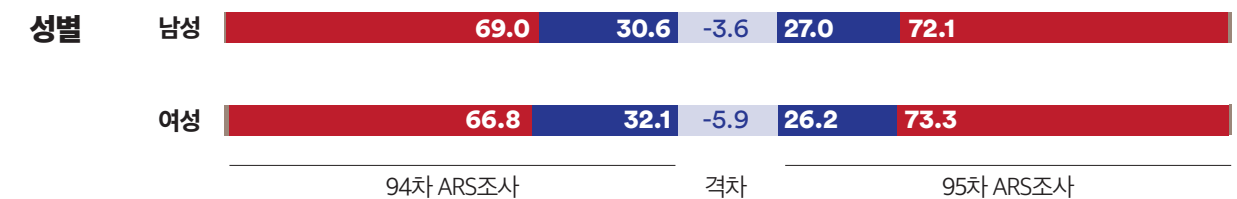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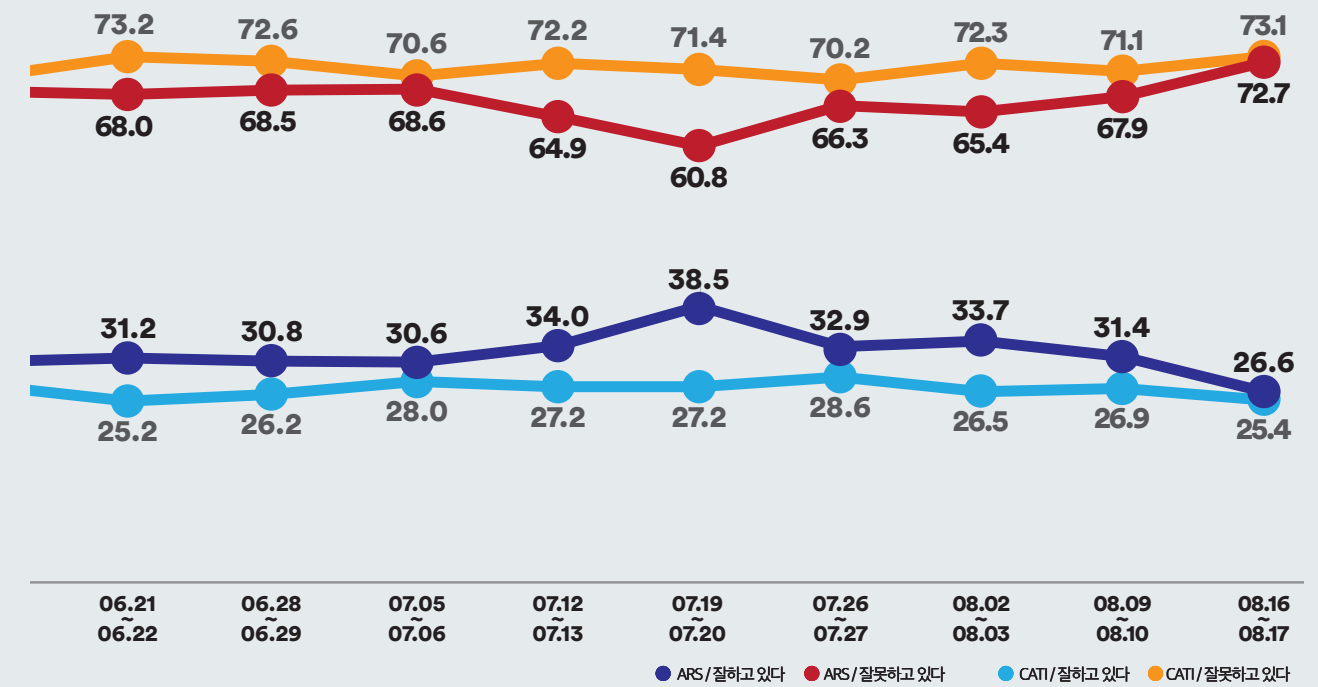
CATI



지난 79차 CATI조사 대비 '긍정' 평가 1.5%p 하락, '부정' 평가 2.0%p 상승(격차 47.7%p)  
 지난 94차 ARS조사 대비 '긍정' 평가 4.8%p 하락, '부정' 평가 4.8%p 상승(격차 46.1%p)  
 두 조사의 모든 권역, 남·녀 모두, 60대이하 연령층에서 '부정' 평가 우세  
 중도층의 평가 간 격차는 CATI 64.5%p(지난 조사: 57.7%p), ARS 53.3%p(지난 조사: 45.2%p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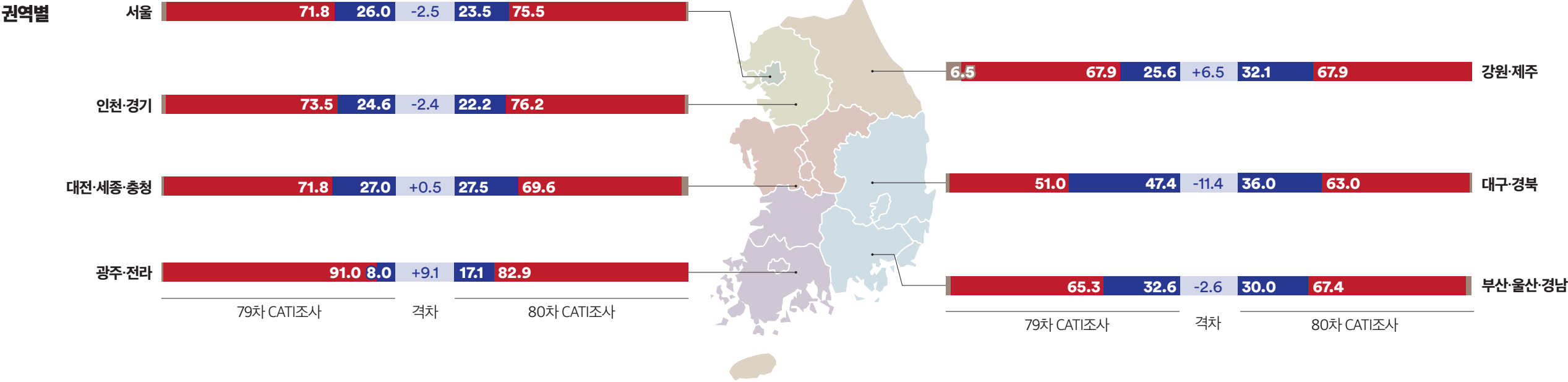
주차별 국정운영평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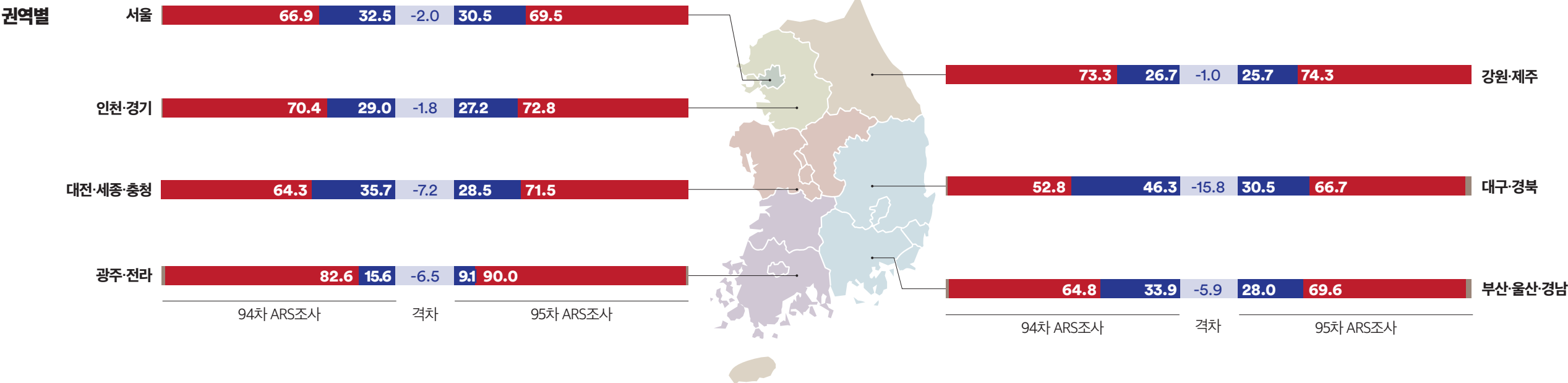
격차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는 편이다 잘하고 있다 모르겠다

Q.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CATI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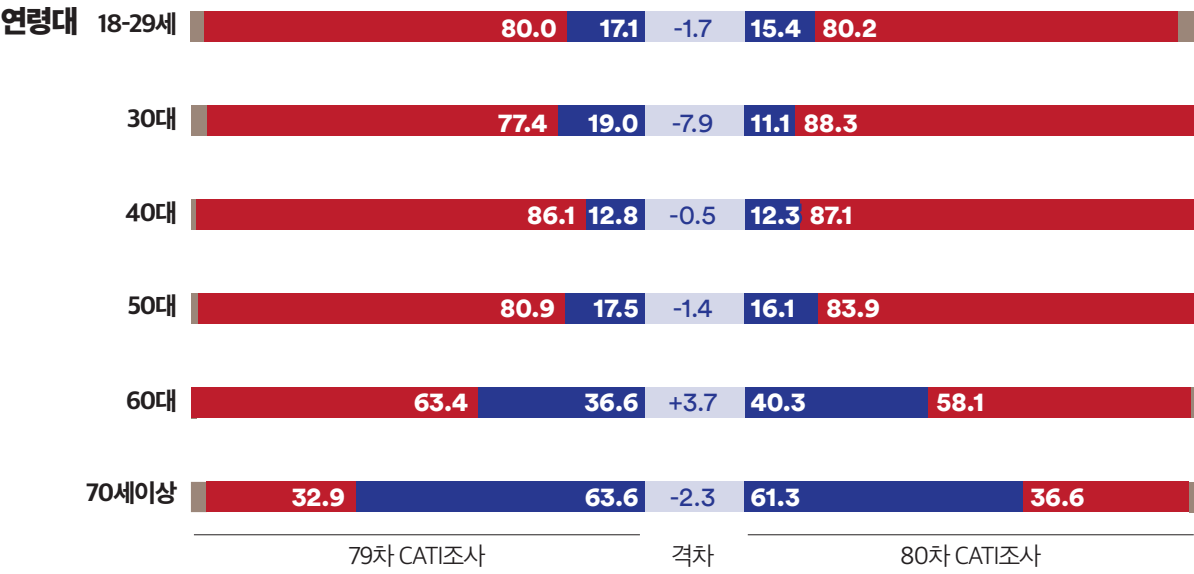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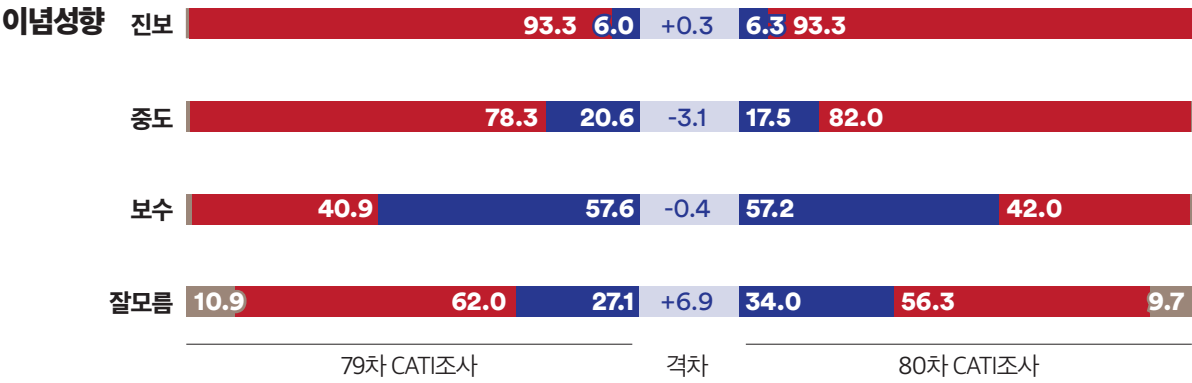
AR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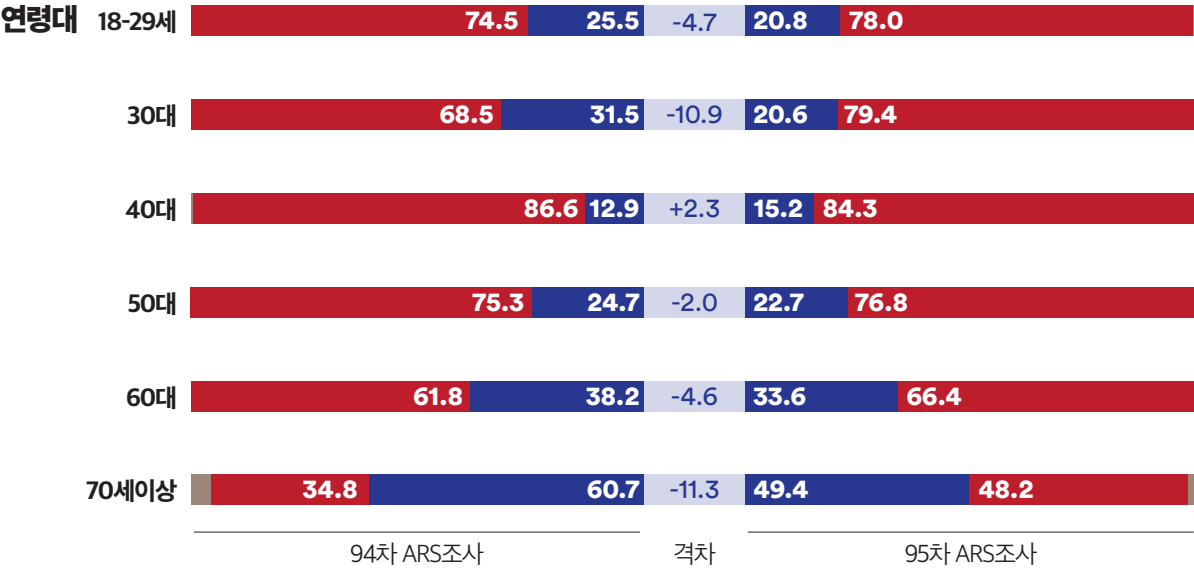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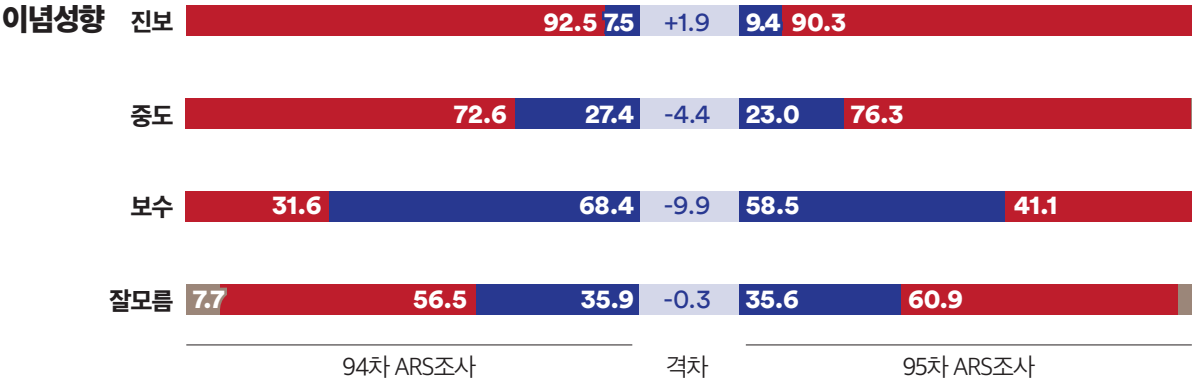
격차    잘하고 있다    잘못하고 있다    모르겠다

Q.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CATI



ARS



격차

잘하고 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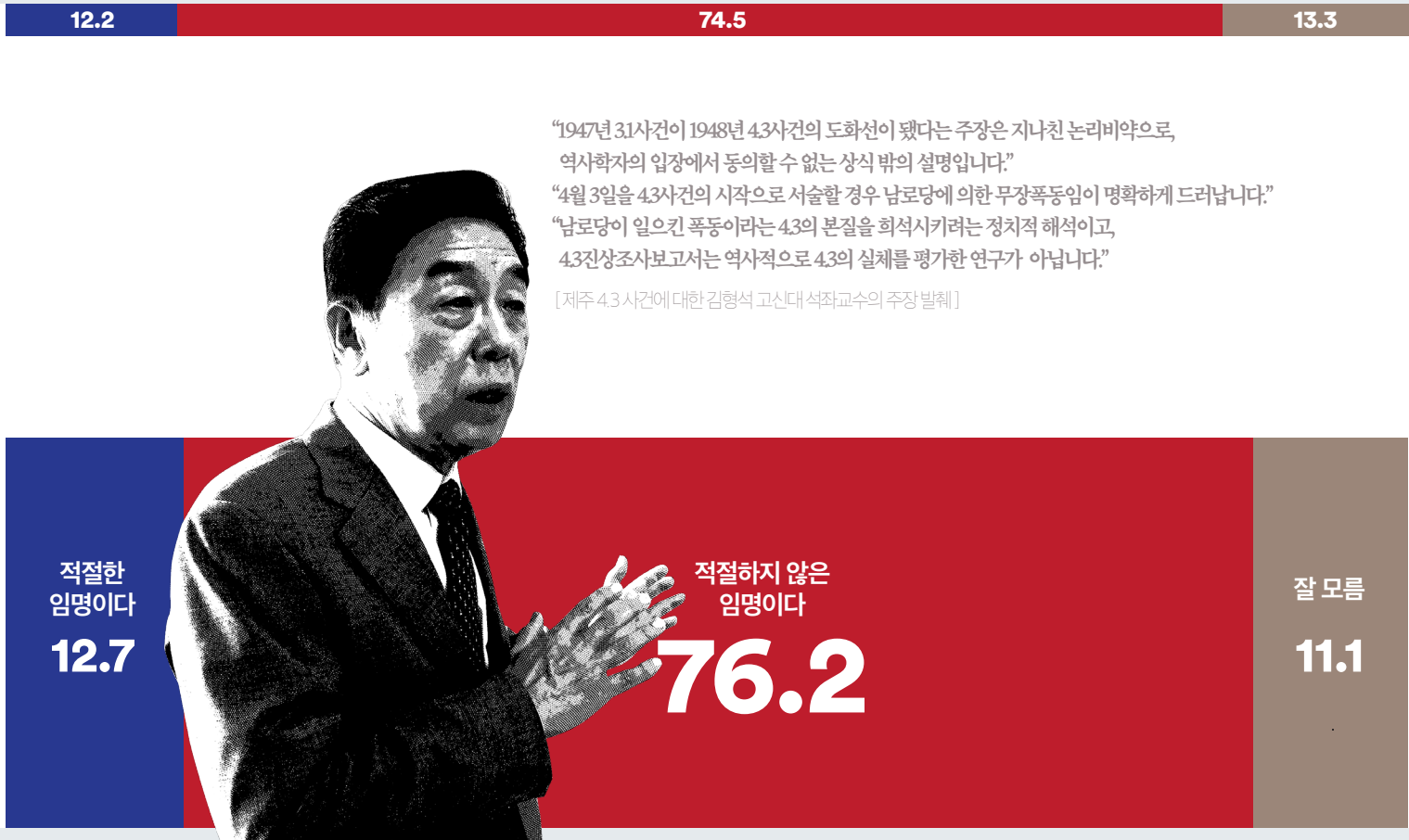
잘못하고 있다

모르겠다



Q. 윤 대통령은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고 홍범도 장군 홍상은 육군사관학교에 두면 안되며, 제주 4.3사건은 남로당의 무장 폭동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던 김형석씨를 임명했습니다. 이 임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CATI



“1947년 31사건이 1948년 4.3사건의 도화선이 됐다는 주장은 지나친 논리비약으로,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설명입니다.”  
“4월 3일을 4.3사건의 시작으로 서술할 경우 남로당에 의한 무장폭동임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.”  
“남로당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4.3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정치적 해석이고, 4.3진상조사보고서는 역사적으로 4.3의 실체를 평가한 연구가 아닙니다.”  
[제주 4.3 사건에 대한 김형석 고신대 석좌교수의 주장 발췌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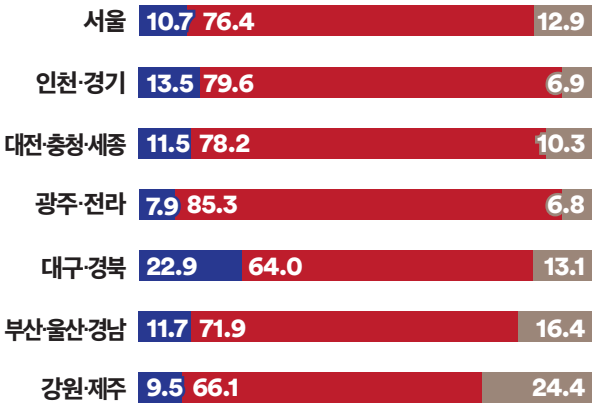
AR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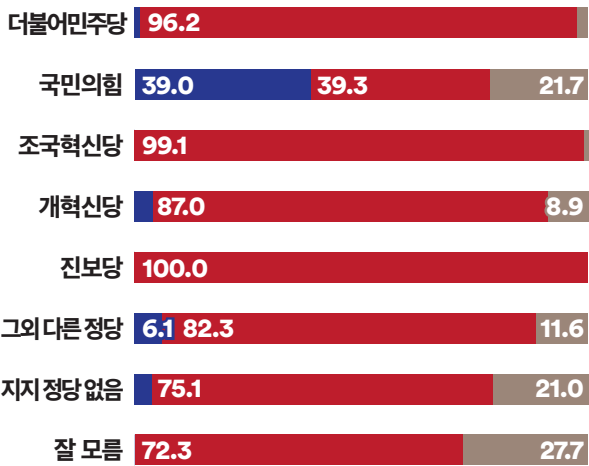
신임 독립기념관 관장 김형석씨에 대한 임명 적절성을 물어본 결과  
두 조사 모두 10명중 7명 이상이 ‘적절하지 않다’고 응답(응답간 격차: CATI 63.5%p, ARS 52.3%p)  
모든 권역과 60대 이하 응답층에서 ‘적절하지 않다’는 응답 우세  
국민의힘 지지층은 CATI조사는 박빙, ARS조사에서는 ‘적절하다’는 응답 우세  
보수층은 CATI조사에서는 ‘적절하지 않다’는 응답 우세(적절 33.9%, 부적절 53.5%), ARS조사는 박빙(적절 41.4%, 부적절 41.9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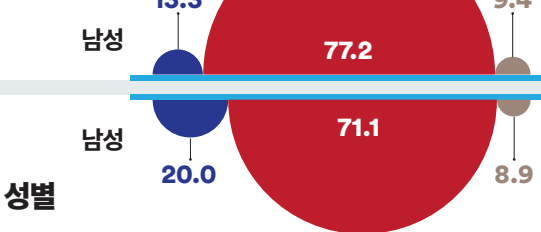
권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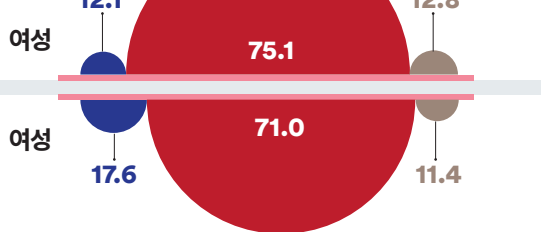
정당지지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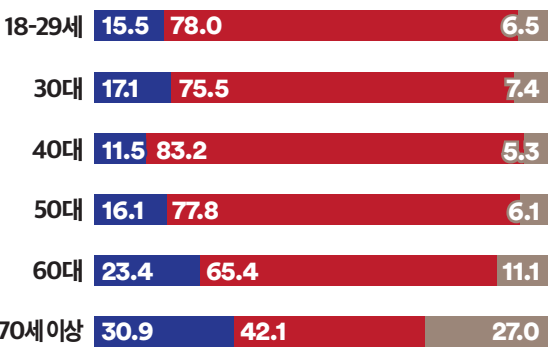
성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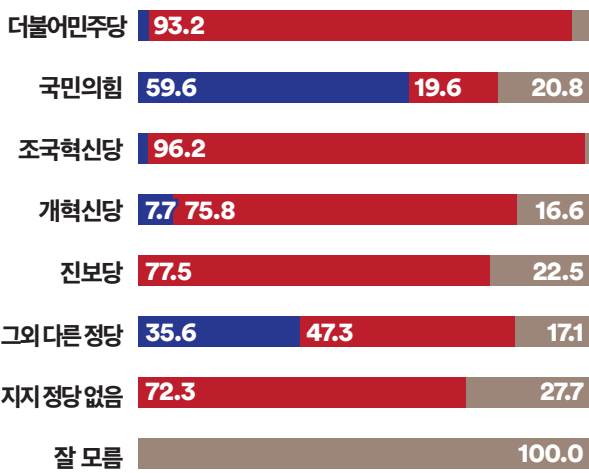
성별



연령



정당지지도



\* 79차 CATI, 94차 ARS 조사 질문 결과

적절하다, 적절하지 않다, 잘 모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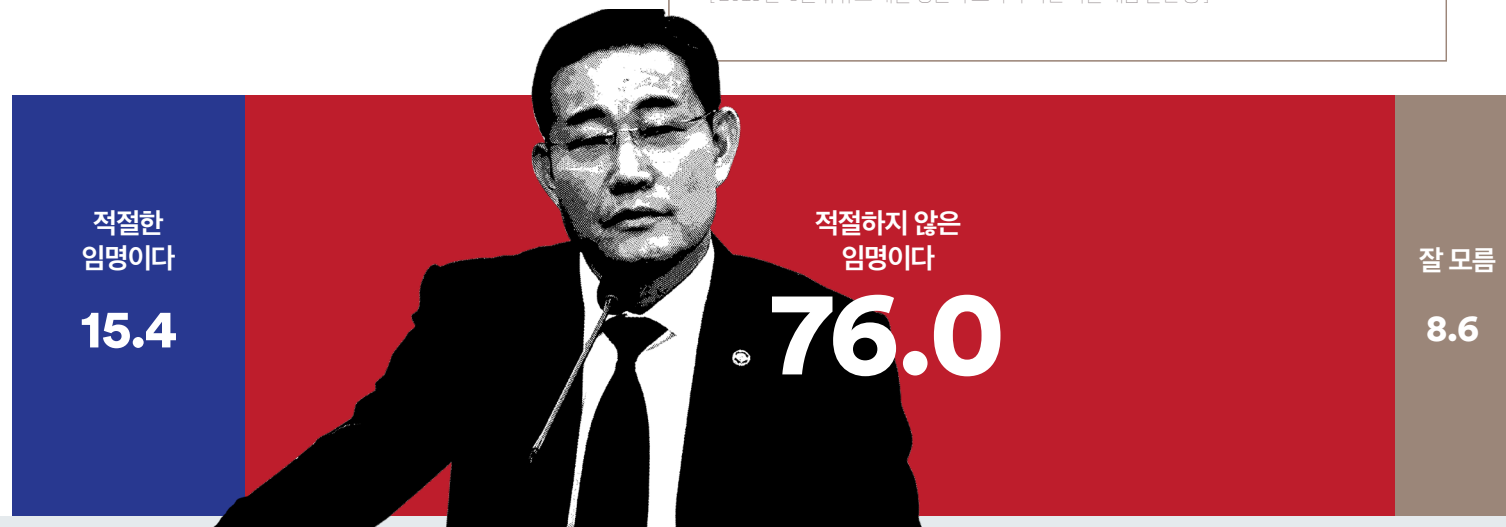


국가안보실장 인사 적절성

Q.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을 겸임하게 된 신원식 장관은 “과거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?”라고 발언했습니다.  
이 같은 역사 인식을 가진 인사를 안보실장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CATI

“조선을 승계한 대한제국이 무슨 인권이 있었습니까? 개인의 재산권이 있었습니까?  
아니, 예를 들어서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 
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? 국민들이?”  
  
“미워하는 건 다 했고 사과받고 돈 받았잖아요. 이제 잊어버리고  
다시는 우리가 이런 꼴을 안 당하도록 정말 냉철하게 부국강병을 해야 된다는  
그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. 그게 국일이고 그게 진정한 반일이고 국일이지.”  
  
[ 2019년 8월 유튜브 채널 장군의 소리와 가진 특별 대담 발언 중 ]



AR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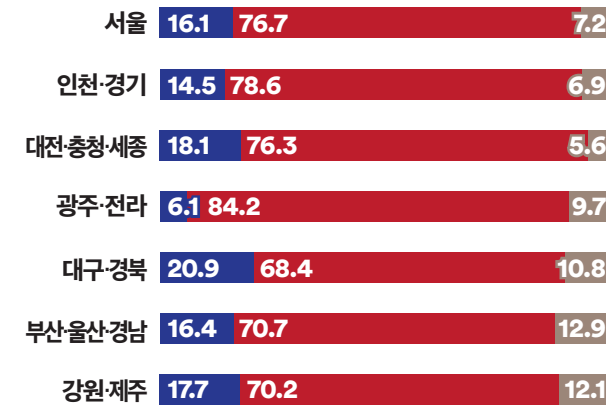
“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일제보다 행복했겠느냐”고 말한 신원식 안보실장 임명에 대해 물어본 결과  
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(ARS는 10명 중 7명 정도)는 ‘부적절한 임명’이라고 응답(격차: CATI 60.6%p, ARS 47.9%p)

모든 권역과 60대 이하 응답층(ARS 70대 포함)에서 ‘적절하지 않다’는 응답 우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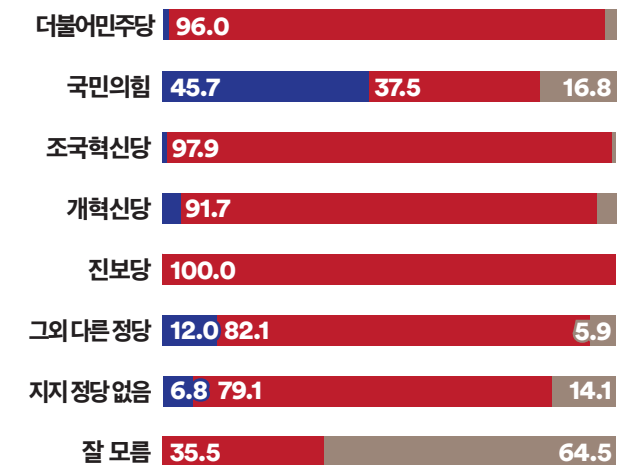
국민의힘 지지층은 ‘적절’ 응답이 앞섬

보수층은 CATI 조사에서는 ‘적절’ 36.2%, ‘부적절’ 51.3%로 ‘부적절’ 우세, ARS조사에서는 ‘적절’ 46.1, ‘부적절’ 37.9%로 ‘적절’하다는 응답 앞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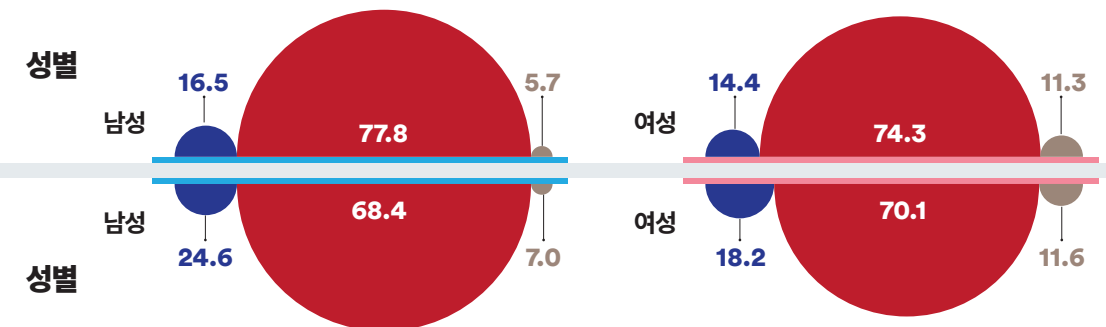
권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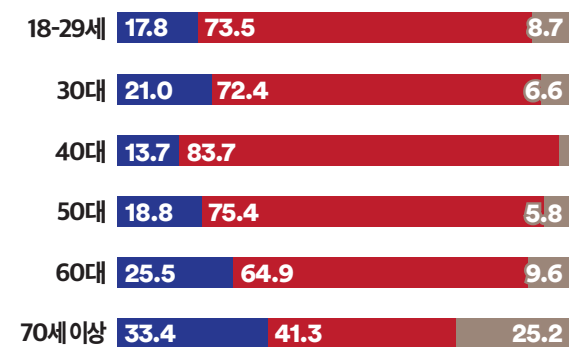
정당지지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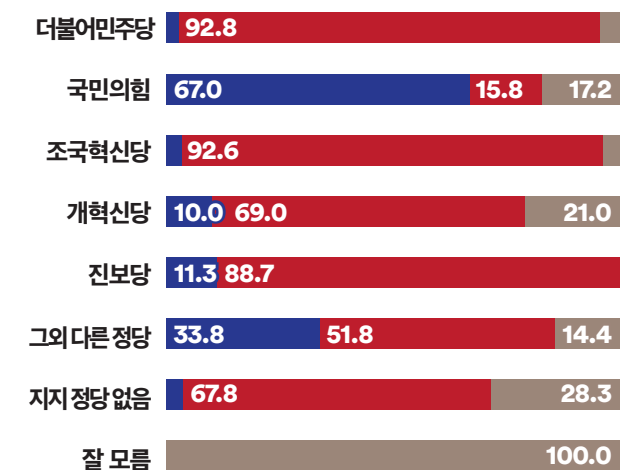
성별



연령



정당지지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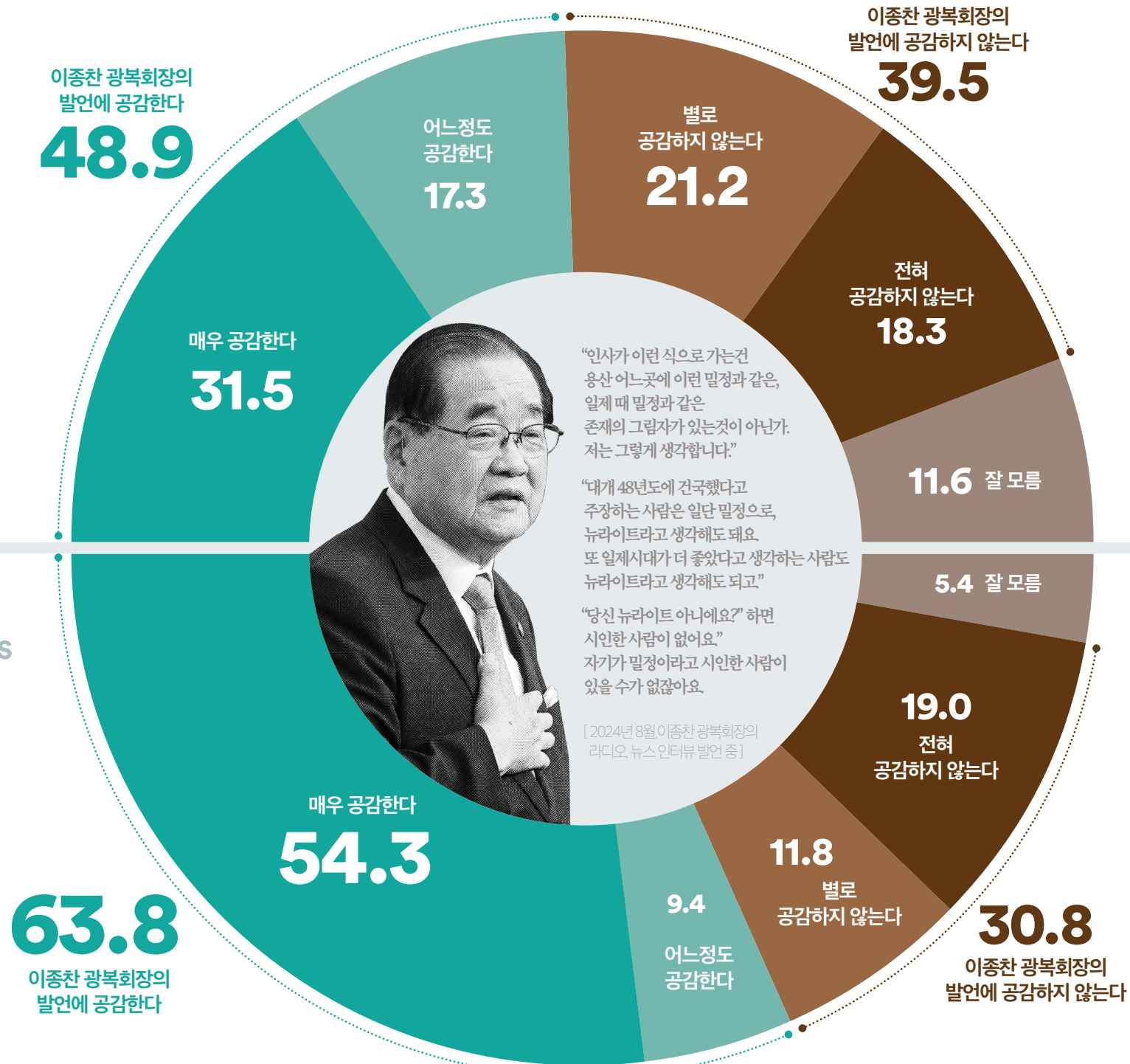


■ 적절하다 ■ 적절하지 않다 ■ 잘 모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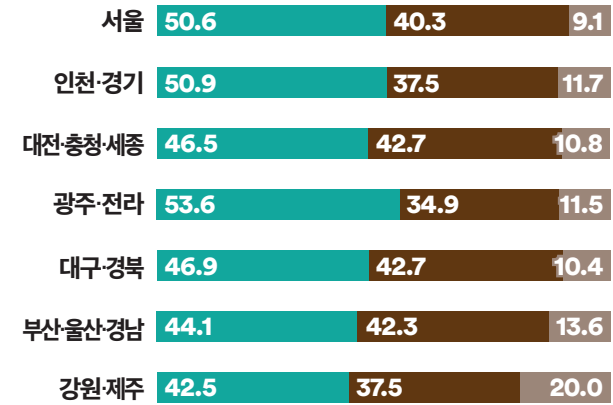
Q.3대 역사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, 국사편찬위원회,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수장을 모두 뉴라이트 계열 인물이 차지하는 등 최근 역사 관련 인사에 대해 이종찬 광복회장은 “용산에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다”고 말했습니다.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CAT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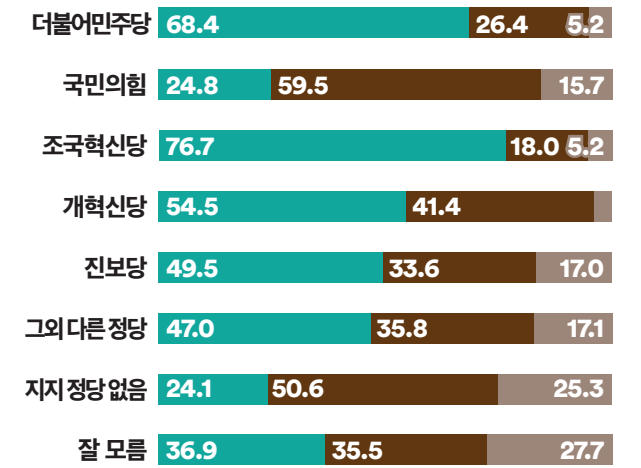


AR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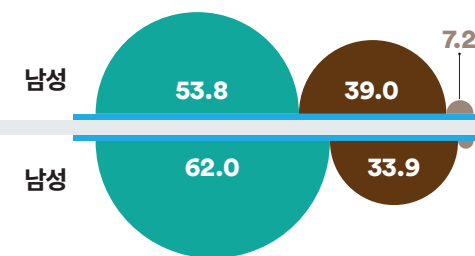
권역



정당지지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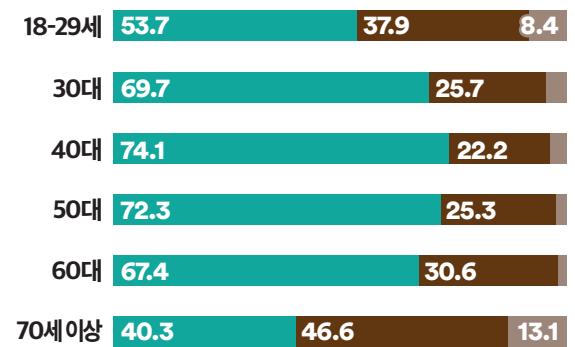
성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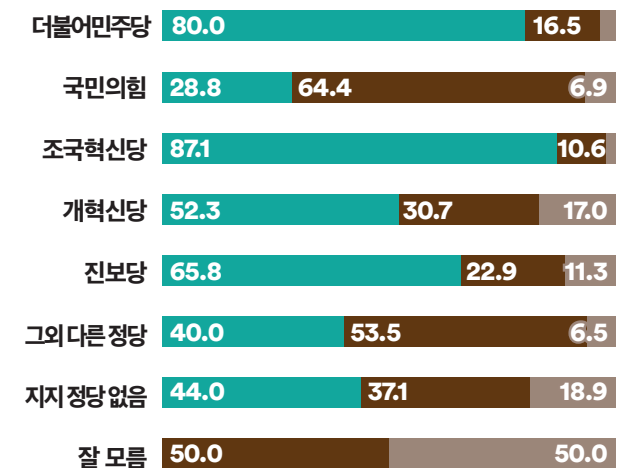
성별



연령



정당지지도



CATI조사는 10명중 4명 이상, ARS조사는 10명중 6명 이상이 이종찬 광복회장의 발언에 ‘공감한다’고 응답  
 두 조사의 모든 권역, CATI조사의 40~60대와 ARS조사의 60대 이하 연령대에서 ‘공감한다’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 
 중도층의 경우 CATI조사에서는 ‘공감’ 응답이 6.3%p 앞서고, ARS조사에서는 ‘공감’ 응답이 40.4%p 앞섬

WWW.  
FLOWERRESEARCH.  
COM

---

#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

---

WR\_202408\_03

---